

오피니언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박 후 건



요즘 정치권에서는 복지논쟁이 한창이다. 아권에서는 국민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보편적 무상복지를, 그리고 여권에서는 필요한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선별적 복지정책이 현 한국 현실에 맞는 복지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작 복지논쟁에 불을 붙였던 박근혜 한나라당 의원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한국형 복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여기에 국민참여당의 유시민 전 의원은 민주당의 무상복지 선거용 캐치프레이즈로, 박근혜 의원의 한국형 복지를 포장한 것과 내용이 없는 것으로, 그리고 한나라당은 복지정책을 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며 모두를 비판하고 있다.

누구의 정책이 옳건 간에 복지가 한국 정치의 중요한 화두가 된 것은 현재 한국 사회의 현실을 고려할 때 환영할 만한 일이다. 1997년 이른바 IMF사태라는 외환위기 때부터 한국사회의 양극화는 급속하게 이뤄졌다. 양극화 문제가 가속화되는 주된 요인들 중에는 비정규직 문제가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한국 전체 노동자의 약 50%인 830만명 정도이며 이들은 정규직의 47% 정도의 임금을 받고 있는데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다. 또한 한국은 OECD 국가 중 저임금계층이 가장 많고 임금 불평등도 가장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논쟁과 합의 민주주의

참고로 저임금계층은 452만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26.5%이고, 상위 10%와 하위 10% 임금격차는 무려 5.25배나 된다. 그러므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며 여기에 대한 건설적인 논쟁은 장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복지논쟁은 복지가 담고 있는 목적을 벗어나고 있다.

원래 복지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적 혜택을 사회성원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줌으로써 공동체에 대한 성원들이

의 의식을 강화하고 진정한 공동체로서 거듭나기 위해서다. 이런 맥락에서 복지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개인이 사회성원이면 기본적으로 부여받는 개인적 권리 차원에서 복지와, 사회성원 그 누구도 사회에서 배제시키지 않고 평등하게 고려해 공동운영체로서 갈 수 있는 토대를 유지하겠다는 사회적 차원의 복지다.

개인에 대한 고려와 사회에 대한 고려라는 복지의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은 마치 사회라는 거대한 지붕을 떠받치고 있는 두 개의 기둥과 같고 음과 양 같은 유기적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리당락에 치우치지 않고 합의 민주주의를 통해 사회통합을 견고히 하는 방향에서 복지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국민의 모든 후생을 보장하는 과잉복지는 국민들로 하여금 복지병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승리자와 패배자가 엄격하게 나누어지는 시장경제에서 열심히 살았지만 패배자의 대열에 걸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당연한 사회성원으로 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건전한 복지정책은 시장경제를 지속적으로 돌아가게 하고 사회통합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데도 필요불가결하다.

복지논쟁이 마치 선거에서보다 유리한 고지를 달성하겠다는 목적과 다른 정당 또는 다른 대권후보와 차별성을 갖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면 사회통합이라는 복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망각하는 것이다.

정치권은 복지를 당리당락의 도구가 아닌 일시동인(一視同仁)이라는 정신 아래 합의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복지는 그야말로 백년대계이며 국가발전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이며 척도이기 때문이다.

(경남대 정의과 부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의료 칼럼

전 영 식



자궁경부암은 여성의 주요 암으로서, 사망 원인 중 상위 5위 이내에 속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성암 중 자궁경부암이 6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 암의 원인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지만 다행히 자궁경부암은 그 원인이 확실한 편이다.

즉 자궁경부암의 원인은 인유두종바이러스(HPV)로 알려졌다. 이 바이러스는 현재까지 100여종 이상의 바이러스 유형이 있으며, 이중 40여종이 생식기 감염과 연관되어 있다. 이중 자궁경부암의 원인이 되는 인유두종바이러스 유형은 15종 정도이다. 결국 인유두종

공경부암 백신의 접종과 같은 적극적인 예방법이다. 동시에 성경험 여성에게는 자궁경부암에 대한 조기 검진 및 정기적인 자궁경부세포검사를 권고하는 것이다.

자궁경부암 백신의 예방접종은 자궁경부세포 선택 검사에 대한 대체 방법이 될 수도 없고 예방접종 자체가 치료는 절대 아니다. 하지만 자궁경부암 이전 상태인 비정상 자궁경부 세포 병변인 상태에서 더 이상 추가적인 인유두종바이러스 감염을 미리 차단해서 자궁경부암으로의 진행을 억제할 수도 있다.

사랑하는 딸에게 예방접종을

바이러스가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며, 특히 16형과 18형이 자궁경부암의 약 70%를 차지한다.

성적으로 활발한 여성들의 50% 이상은 평생 동안 적어도 한번 이상 생식기 관련 바이러스에 감염된다. 15~24세의 여성들 4명중 1명은 인유두종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전체 여성 중 약 80%는 50세경까지 인유두종바이러스에 한번 이상 감염된다. 자궁경부 암세포의 거의 100%에서 HPV DNA가 검출이 되므로 이를 예방하는 방법이 자궁경부암 예방법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개발돼 시판되는 자궁경부암 백신들은 인유두종바이러스 16형과 18형의 감염을 차단해 자궁경부암의 발생을 예방하고 있다. 현재 시판중인 백신들은 2006년도에 최초로 개발돼 미국식품의약국(FDA)승인을 받은 미국의 다국적 제약회사인 머크사의 '가다실'과 가다실에 이어 발매된 GSK의 '서바릭스'이다.

자궁경부암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아직 성경험이 없는 청소년과 성적 활동이 시작되는 20대 미혼 여성에게 자

자궁경부암 백신은 이전에는 9~26세의 소녀 및 여성에게 확실한 예방이 되는 최적 나이대로 설명돼 왔으나 최근에는 27~45세 여성에게도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은 자궁경부암에 대한 예방 효과가 확실함이 검증됐다. 중요한 사실은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은 접종 후 생성된 항체가 30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즉 거의 평생토록 면역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위 두 가지 백신 접종으로 자궁경부암 주요 원인 바이러스 16, 18형 뿐만 아니라 다른 추가 유형에 의한 자궁경부암(CIN) 발생도 부분적 예방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증명되었다. 자궁경부암 백신접종은 원칙적으로 6개월 안에 3회 접종을 권고하고 있는데, 백신 접종 후 부득이 임신이 된 경우에는 추가 접종을 연기할 수도 있어서 탄력적으로 접종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 또한 백신 접종은 자궁경부 인유두종바이러스 검사나 자궁경부암검사 결과와 무관하게 접종해야 하며, 백신 접종 후에도 정기적으로 자궁경부암검사는 시행해야 한다.

(시얼병원 산부인과 원장)

기 고

김 호 남



국내외적으로 크루즈 관광에 대한 인식과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크루즈 관광 수요가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목표항 크루즈 터미널 개발이 시급하다.

크루즈 산업은 관광산업 중에서 발전 속도가 빠르고 부가가치가 높은 해양관광 산업으로 향만개발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국내 경제여건의 상승, 소득수준의 증가, 국민들의 소비패턴 등의 변화로 인한 국내적인 측면과 중국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동북아 해상물류 환경 등 대외적

들을 살펴야 한다.

우선 현재의 건물과 새로운 크루즈 터미널, 부속건물들은 적절한 규모로 해양관광과 시내 중심부의 배경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유달산과 삼학도 공원 등 해양관광의 조화로운 디자인으로 은행, 소풍, 회의장, 체육시설 등의 부대 시설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는 등 승객의 편리성을 내포해야 한다.

또한 인근 지역과의 관광 상품개발이 필요하다. 목표항 인근 지역에는 신안항 등 1004개의 섬, 진도 신비의 바닷길과 관매도를 비롯한 많은 역사와 문화가 있다. 영암 원인박사, 강진 도자기

목포항 크루즈 터미널 개발 급하다

인 측면에 의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토록 해양산업이 매우 급진적이면서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다도해의 많은 해양자원을 가지고 있는 목포 역시 향만개발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다.

목포항은 크루즈 터미널 개발에 있어 지리적으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고 있지만 크루즈 터미널의 부재로 동북아시아를 운항중인 정규 크루즈 여객선이 배제된 실정이다. 또 목포에 몇 차례 입항한 크루즈 여객선도 목포 항만시설을 긍정적인 측면만이 있는 것이 아닌 것으로 평가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목포항 크루즈 전용 터미널을 시급히 개발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목포의 향만도시를 국제항만 도시로 변모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목표항의 개발현황과 부두별 특징을 살펴보고 크루즈 터미널로 개발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

체할 등 해남, 완도 등 서남부권 모든 곳도 문화 관광지로 손색없다. 그러나 홍보와 교통, 관광지 간 연계성이 떨어져 있어 소외되고 있는 현실이다.

교통망 확충도 절실하다. 크루즈 터미널 이용 승객이 시내와 인근 지역 관광지로 이동시 셔틀버스 등을 운영하고 납만한 크루즈 사업과 연계를 통해 목표항 크루즈 이용객들이 서해안 관광으로 시작해 동남해안 관광 및 해외 관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이토록 최적의 지리적 조건과 풍부한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목포에 크루즈 산업을 개발하면 재정확충은 물론 글로벌 시대에 맞춰 국제적 도시로 자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정·관·학·경·시·민단체 등의 관계자들이 추진력을 구성하고 서둘러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근회건설 대표·목포중앙고등학교 이사장)

먹을거리 사회문제 안되게 단속 철저해야

요즘 먹을거리 안전이 사업주의 도덕성 부재로 크나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먹을거리 안전은 가공식품을 만들어 내는 수많은 기업 그리고 가게는 크고 작은 식당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간섭해서는 안된다.

사실 먹는 문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의 생수 문제에서부터 식단의 반찬제사음 문제 등은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이 되는 최소비용에 최대효과를 추구하는 사업

주의 지나친 이윤추구가 빚어낸 현상이다. 결국 이 같은 현상은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더불어 그들 가족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와 단속기관은 무엇을 하는가. 그들의 단속 의지와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관대함을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

갈수록 심각해져가는 우리 사회 기업과 국민이 그들의 그런 행태를 이해해 가고 있는 건 아닌지 두려움이 먼저 든다.

▲김대현·화순군 화순을 교리

시 설

조합장 선거 비리, 조합원에도 책임이 크다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또다시 '돈 선거' 비리가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 목포수협장 선거 당시 금품이 살포된 것으로 밝혀져 지난해 신안군 임자농협에서 발생한 악몽이 재현되고 있다.

전남도선관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5일 실시된 목포수협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조합원 3명이 후보자에게 각각 30만~220만 원씩 총 285만 원을 받았다 고 자진 신고했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공소시효가 오는 15일까지인 점을 감안해 조합원들을 상대로 최대한 자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자수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면제할 예정이어서 수사자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실 농·수·축협 조합장 선거를 둘러싼 불·탈법 비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지난해 2월 신안 임자도에서 농협 조합장 '돈 선거'로 인해 섬 전체가 쑥대밭이 됐다. 마을 주민 1000여 명이 조사를 받았고, 당선자 박오씨를

포함해 출마자 4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주민 6명이 기소됐으며 31명이 3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극심한 선거 후유증을 겪었다.

조합장 선거가 이처럼 돈 선거로 전락하게 된 것은 그 권한이 막강하다는 데 있다. 거역의 영봉에다 대출 및 인사 등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부장·특혜 대출이나 인사 비리 등도 난무해 왔다.

따라서 조합장 선거의 불·탈법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걸맞은 전문경영인 체제를 활성화해야 한다. 강력한 처벌 역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유권자인 조합원의 의식변화도 중요하다. 전남지역의 경우 올해 농·수·축협 21곳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유권자들의 주인의식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잘못된 조합장 선출은 조합의 부실로 이어지고, 그 명에는 조합원이 진다는 사실을 유념하란 얘기다.

비상등 켜진 물가 특단대책 서둘러라

소비자 물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국제유가 급등이 공업제품 가격을 밀어 올리고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이 외식 서비스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등 물가 상승세가 전방위로 확산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1월 4.1%로 한은 물가안정 목표치(3.0±1.0%)의 상한을 이미 넘어선 데 이어 2월에는 국제유가 급등과 이상한파 등의 영향으로 4.5%나 뛰어 27개월 만에 최고치로 올랐다. 특히 중동의 정세불안으로 인한 유가 급등으로 석유류 가격은 12.8%나 상승해 물가안정이 심각한 위협을 받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걱정되는 점은 농축수산물과 공업제품, 공공서비스, 개인서비스, 집세 등 모든 부문에서 올라 공급 측면의 충격과 인플레이션 심리 확산이 동반됐다는 것이다. 또한 이 같은 물가 상승세가 구조적인 측면에 기인함으로써 당분간 물가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는

앞으로 물가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인플레이션이 현실화돼 국가경제와 서민가계가 심각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신호다.

현재의 물가불안은 이미 예견된 것으로 정부의 안이한 대처가 가속화시켰다. 수입물가가 계속 뛰는데도 교환율을 유지하고 초저금리 정책을 지속하는 등 선제적 대응의 기회를 놓쳤다는 얘기가.

지금은 물가불안이 전방위적이고 상승속도 커 민심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 정부는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물가 안정'에 뒤야 한다. 정부는 뒤늦게 세계를 포함한 종합적인 비상계획을 수립하는 등 비상물가 대응체제를 강화하기로 했지만 과거와 같이 미시적이고 임시방편적으로 대처했다가는 큰일난다.

정부는 물가를 잡지 못하면 성장이나 개발은 사상누각(沙上樓閣)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기민하고 효율적인 대응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봄이다! 고공행진을 멈추지 않는 유쾌한 봄이다. 봄 소식과 함께 희망과 재미의 전령사들이 오고 있다.

그동안 재미있는 일어난 논 췌고 찾아 볼 수 없었는데 봄과 함께 우리의 신경 한가닥 한가닥에 생기를 불어넣을 그들이 오고 있다.

박지성, 박찬호, 이승엽, 추신수 등이 주인공이다. 그들의 인생에는 역경을 극복하고 최고의 무대에서 성공한 스토리가 있다. 그래서 국민은 그들의 활약을 기대하고 환호한다. 드라마틱한 세계 최고의 스포츠 무대에서 당당히 한국인의 우수성을 알리며 탐과 승리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대표를 은퇴한 박지성은 한국 축구의 세계화와 축구를 통한 행복을 나누기 위해 제이에스파운데이션(박지성 재단)을 세웠다. 말수가 적은 만큼 속이 깊어 보인다 그의 결단력이 슬겁고 장하다. 박지성은 환경이 어려운 유소년 선수를 위한 장학금 지원이나 모금 행사도

필할 모양이다. 국가대표 은퇴 후 그만한 다짐으로 축구인생의 또 다른 출발점을 삼고 중점을 지향한다고 하니 남은 선수생활이 더더욱 불을 뿜을 것 같다.

올릭스 바르셀로에 입단한 박찬호와 이승엽의 투타에도 관심이 쏠릴 듯 하다. 거이여 선발투수를 떠내려오는 '코리아 투프' 과 요미우리의 설움을 딛고 명예회복을 다짐한 '국민타자' 이승엽의

막판 승수에 대한 기대가 크다. 근성의 '품운아' 김병현이 라쿠텐에 영입되어 판이 더 흥미로울 것 같다.

이래저래 TV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늘어날 것 같다. 지바 롯데의 김태균을 포함한 한 두 투수와 두 장타자의 열전이 때로는

한국 선수끼리 맞장을 뜨는 그림도 볼 수 있을 것 같다.

미국에서는 추신수가 맹타 존족을 자랑하며 메이저리그를 호령할 것이다. 재미 하나 없던 겨울의 지루함을 날려버리고 봄의 운동장에서 생동감 넘치는 감동과 기쁨이 달려오고 있다.

/최재호 정경부 차장 lion@kwangju.co.kr



봄의 전령사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日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가)11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광고매체팀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전산팀 2200-685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 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교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